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기독교윤리학개론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결혼과 이혼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개요

- 결혼은 가장 기본적이며 영향력 있는 사회활동의 단위이다
- 미국 이혼율 50% 이상
- 기독교적인 결혼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성서의 결혼관

- 결혼의 본질
 - 결혼은 약속이다
-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셨다
 - 생육하고 번성하라 <--- 자연스러운 재생산 (재 창조)
 - 아버지와 어머니의 맥락 속에서 ‘남편’과 ‘아내’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 “사람을 지으신 이나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마 19:4)
 - 결혼한 동성연애자들은 불법적 성관계 .결혼하지 않은 상태
- 결혼은 성적인 결합과 연관이 있다
 - 한 몸 (cf. 고전 6:16)
- 결혼은 성적인 결합보다 더욱 긴밀한 결합
 -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결합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다
 - 상호 약속을 통한 결합
 -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서...”
 - 하나님은 결혼을 제도화, 결혼 서약의 증인
- 결혼의 존속 기간
 - 결혼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헌신
 -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롬 7:2)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 결혼은 지상의 제도에 불과
cf. 물몬경: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결혼
-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도 시집도 아니 갈 것

■ 배우자의 인수

- 결혼은 한 남성과 여성 → 일부일처제
- 일부다처제 → 친구약 공히 반대
cf.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신 17:17)
-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출 20:17)
- 남성과 여성은 거의 동일한 비율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이혼

- 이혼에 관한 기독교인의 합의
→ 보편적 합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 이혼은 하나님이 정한 이상형이 아니다
- 이혼은 어떤 이유에서든 허용될 수 없다
- 이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핵심 정리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학의 정의

- ‘성서’ + ‘자연’ + ‘이성’
= 옳고-그름
= 근원과 원칙
- * 옳고/그름 = 근원과 원칙(자연=성서=이성)
- 성경과 이성과 자연의 조명 속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근원과 원칙/실천을 다루는 학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학의 범위

하나님의 뜻과 목적

■ 개인, 결혼, 산업, 국가

하나님의 심판

-아디아포리즘*도 기독교윤리 범위에 예속.
* adiaphorism: 선과 악이 분명치 않은 행위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여섯 가지 윤리관

- 도덕률 폐기론:
어떤 도덕 법칙도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
- 상황주의: 단 하나의 절대 법칙만이 존재한다
- 일반주의: 몇 가지 일반 법칙이 존재하지만
절대 법칙은 존재 않는다
- 무조건적인 절대주의: 서로 모순되지 않는 많은
절대 법칙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 갈등적인 절대주의: 덜 나쁜 악에 복종해야 한다
→ 보다 높은 차원의 법칙에 복종해야 한다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관

- 하나님의 의지(God's will)에 토대를 두고 있다.
-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절대적이다.)
- 하나님의 계시에 토대를 두고 있다. (특별 계시)
- 존재(what is)가 아닌 당위적이다. (규정적이다)
- 의무론적이다. (≠ 목적론)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고대의 도덕을 폐기론

- 과정주의 (processism)
- 쾌락주의(Hedonism)
 - 에피쿠로스 학파(Epicureans)
- 회의주의(Skepticism)
 - 모든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중세 도덕을 폐기론

- 의도주의(Intentionalism)
 - 좋은 의도에서 우발적 살인을 했다면 나쁜 건 아니다.
- 주의주의(Voluntarism, 主意主義)
 - 14세기 옥캄(William of Ockham)
- 명목주의(Nominalism, 유명론)
 - 옥캄 사상의 다른 측면
 - 보편적 실재를 부정하는 입장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근/현대의 도덕을 폐기론

- 근대
 - 공리주의(Utilitarianism)
 -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벤담)
 - . “행복한 돼지보다는 불행한 인간이 낫다.” (밀)
 - 최대/최다 폐락에 따라 유동적
 - 실존주의(Existentialism)
 - 정서주의(Emotivism) - 감정에 따라 상대적
- 현대
 - 허무주의(Nihilism)
 - 상황주의(Situationism)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도덕 폐기의 일반적 비판

- 자기기만적이다.
- 자기 주관적이다.
- 개인주의적이다.
- 비효과적이다.
- 비합리적이다.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절대주의

- 1) 무조건적 절대주의 → 제 세례파 전통과 관련
- 2) 상충적 절대주의 → 루터파 전통 (차악)
- 3) 차등적 절대주의 → 칼빈 전통
- 차등적 절대주의의 뿌리
 - 어거스틴: 거짓말의 문제에서는 무조건적 절대주의
 - 모순적 상황에서는 → 차등적 절대주의
 - 예) 도둑에는 등급 존재, 도둑 의무들 상호 모순
 - 더 높은 의무 준수
 - * 사랑에 집중 → 사랑 해야 할 대상의 등급 문제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낙태

태아의 지위	완전한 인간	잠재적 인간	불완전 인간
낙태	절대 불가	상황별 허락	허락
근거	생명의 신성	생명의 출현	생명의 질
모권	사생활권보다 생명 우위	권리들의 결합	생명보다 사생활권 우위

- 태아는 어머니 육체의 부속물인가
→ 낙태는 맹장수술과 마찬가지로
- 생명의 권리와 사생활권 사이의 관계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안락사

-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것
 - ‘좋은(행복한) 죽음’
- 두 안락사
 - 능동적 안락사: 생명을 빼앗는 것
 - 수동적 안락사: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 자살과 타살의 경계
 - 자기 자신 때문에 초래 → 자살
 - 다른 사람 때문에 초래 → 타살
- 사회적인 여건들
 - 가족의 고통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생물의학적 문제

- 기술/ 의학에 대한 정의
 -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 보호
- 생명의 질의 문제
 - 인도주의 파생 → ‘인도주의’의 문제
- 인도주의자와의 차이 –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 목적은 수단/방법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사형, 전쟁, 시민 불복종

■ 사형

- 악의 제거와 생명의 제거에서 오는 모순

■ 전쟁

- 하나님과 세속 권력을 일치시킬 때 오는 속성의 모순
- 행동주의, 평화주의, 선별주의

■ 시민 불복종

- 하나님과 세속 권력을 일치시킬 때 오는 속성의 모순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소동은 동성애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불친절의 죄였을 뿐이다. 손님에 극진히 대접하고 손님에 생명을
보호하는 접대 정경(hospitality)을 어긴 죄이지 동성애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성관하리라'는 뜻의 야다(yadha)는 성관계가
아닌 '원속해지다'는 뜻일 뿐이다. -창세기 19장

소통의 죄는 동성애가 아닌 이기심이였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
지 아니하며” —에스겔 16:49

레위기 5:1은 더 이상 현대에 적용될 수 없다.
제사법이나 결경법이 사실상 철폐된 것이지(cf. 행 10:15) 레위기의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
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역시 적용될 수 없다. -레위기 18:22

불입은 유대인에게 저주였기에 동성애를 안 좋게 여긴 것뿐이다. 불입은 유대 사회에서 저주였다(창 16:1; 삼상 13:8).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자손을 전히 얻을 수 없는 동성애를 좋지 않게 여긴 것은 당연하다. 동성애 자체를 비난한 것은 아니다.

바울은 긴 머리털도 비난하였다.

바울의 가르침 중 일부는 문화적인 것이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된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는냐' 처럼 동성애도 문화적 차이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11:14

이성간의 사랑은 동성애자에게는 비정상적이다.

동성애가 '역리'라는 말을 썼는데 역리란 동성애가 '잘못된' 행위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비정상'이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이성애가 역리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26

다윗과 요나단은 동생애자였다.

들은 '사랑했고'(18:3)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옷을 벗었고'(18:4) '서로 키스했고'(20:4) '안고 지나치게 읊었다'(20:4) 게다가 다윗은 여성들과 성공적 관계를 이룬 적이 별로 없다. —사무엘상 18-20장

동성애 옹호의 성서적 근거와

그것에 관한 주석의
10주요성